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인턴상담교사 NO!!!!



| 글 / 정숙자
(경남 마산여자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부연구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대표)

현 재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기를 맞으며 이성적 욕구, 정서불안 등 자신의 내면적 문제와 미래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유해환경에 노출,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사의 역할이다.

본교에서 학교폭력 중 금품갈취 부분에 해당 되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서 학생은 친구에게 차비를 빌렸다. 그러나 이 학생은 처음 빌릴 때는 꼭 갚으리라 생각하고 빌렸는데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빌린 차비를 가정사정상 몇 날 며칠 돈을 갚지 못하였다. 금품갈취로 학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학생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을 무시한 채 상담기법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착한 학생이 되는 거야” 하면서 접근하였다면 과연 올바른 상담사례일까? 학생도 갚아야 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갚지 못하는 이 학생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질풍노도기 시기라 1회성 상담으로 종

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학생의 경우 가정환경을 무시한 상담은 결코 올바른 학생상담 접근법이 아니다.

지역사회지원을 연계하여 가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60만원을 가정에 지원받게 해 주었다. 응모하는 과정에서 학생과의 유대관계로 보잘 것 없는 자신의 가정까지 학교에서 보살펴 준다는 점에 학생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징계처분대상인 아이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므로 대학생 인턴교사나 상담교사는 할 수 없는 사례이다.

인턴이라 함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치

는 수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가 아닌 인턴 대학생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거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보다 학생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초, 중, 고 시기가 얼마나 한 인간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인턴 상담교사를 파견하여 한 아이를 돌본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결코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한 판매상담이 아니다. 상담이란 언어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진정한 비언어 메시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욱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전문가 대신 인턴 교사를 활용하는 것 과 같이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정책은 애초 시작되어서도 안 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학교 안에서도 사회 못지않게 여러 일이 발생한다. 유창한 언어구사로 사춘기 학생을 이해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청소년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학교 안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활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는 변화되었고 사춘기 학생 접근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은 컴퓨터로 세상과 대화하는 세대인데 과거 보릿고개시절 지게로 산에 나무하던 시절을 예를 든다면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식상하기 그지없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 96개교 '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사 연구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애초 연구학교 지정은 열악한 가정환경 등 학생의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학교가 선정된 경우이다. 본교만 해도 필자가 상주하기 전 학교폭력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정책연구학교를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확대된다면 학교폭력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신나는 학교, 즐거운 학교'로 변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서 소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

출판사 : EM커뮤니티

저 자 : 다니카 히데키

역자 : 김응택, 민은희, 배웅준, 배정규, 이용표, 장창호, 최이순

장애인 복지 중 가장 뒤쳐진 정신장애인지원. 이 책은 정신장애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학생,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지하는 가족을 위한 책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시스템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한 후 다양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 연구에서부터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연구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입원의 해결가능성에 관해서 임파워먼트, 대안적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통합적 생활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개론

출판사 : EM커뮤니티

저자 : 성민선 외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의 본질, 사회복지실천의 접근 방법, 사회복지실천분야 그리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 사회복지발달의 역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구성요소 등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미시적 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중범위 실천, 사회복지실천의 거시적 접근방법을 중요 이론 및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3부는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는 중요한 사회복지실천 영역을 4부에서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 중성과 사회복지, 비영리조직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정체성,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 이미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과 이슈들에 소개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만한 주제들이고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